

## 안동시 도산면 소재 세 가지 고려금석문의 연구과제

허 흥 식\*

- I. 머리말
- II. 조선전기 지리지에 실린 도산면의 고려금석문
- III. 낭공대사의 부도와 탐비의 위치
- IV. 통진대사낭월보광탑비 비편과 귀부와 이수
- V. 용수사개창기의 연구에 필요한 요소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오늘날 안동시 도산면은 조선시대 대부분 시기 예안현의 핵심지역에 위치하였다. 이곳에는 고려전기에 건립된 세 개의 중요한 금석문이 있었고 현재는 모두가 현지에서 떠나 다른 지역에 실물의 일부나 탁본이 전한다. 이를 현지에서 조사하여 제대로 평가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도산면의 기원은 이황은 떠나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황은 용두산 아래 온계에서 태어나 급제하고 벼슬하던 중반기까지 출생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생애의 후반에 고향을 중요시하여 가까운 도산 아래 토계에 양진암을 짓고 자신의 수양에 힘썼고 도산서당을 열어서 지역의 교육에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명예교수 / heohskr@hanmail.net

몰두하였다. 이황의 호인 퇴계와 도산은 이웃한 분천과 청량산으로 확대되어 도산면의 기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도산면은 낙동강의 상류의 북쪽에 있고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고려와 조선의 수도 개경과 한성으로 가는 지름길에 의하여 많은 유적이 있었다. 신라말기 고승 낭공대사 행적과 고려초기 통진대사 양경, 고려 중기의 용수사개창기가 이곳에 금석문으로 전하지만 현지의 유적은 거의 사라졌다. 낭공대사의 탑비는 서예로나 내용으로 국보의 가치가 있고 실제로 국보로 지정에 예고하였으나 현지의 조사가 부족하여 보물문화재로 격하되었다. 동진대사의 탑비는 위치조차 학계의 견해도 상반되고 비편은 다른 곳에서 확인되었다.

용수사개창비는 탁본의 일부와 전면이 전하지만 위치는 물론 비편이나 귀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필자는 이들 세 가지 금석문은 현지의 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유적을 찾아서 각각 문화재로서 본래의 가치에 알맞은 위상을 찾기를 기대한다. 또한 나는 이들 세 가지 중요한 금석문에 대한 지표조사를 끝내고 연구를 위한 남은 과제에 제안하였다.

◆ 주제어

낭공대사 탑비 부도의 귀부와 이수, 통진대사 부도탑비의 비편, 용수사개창기 비의 법첩, 용산지, 태자사지 귀부와 이수, 각화사 통진대사 귀부, 경북도지정문화재 자료 68호.

## I. 머리말

수도는 인구가 밀집되고 창조력이 집중된 공간이다. 신라의 경주와 고려의 개경과 조선의 한성은 도로가 전국으로 뿔뿔처럼 모여 있는 심장과 같았다. 안동은 고려 전기 吉州에서 고려 명종시대 안동도호부로 중요시되고 복주목으로 불리다가 공민왕이 이곳으로 몽진하여 安東大都護府로 불리기까지 이름뿐 아니라 지역의 위상에서 변화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대부분 시기에 이 지역은 尙州보다 위상이 낮았으나 공민왕이 몽진한 다음부터 위상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상주를 능가하였다. 도산면은 고려와 조선에서 대부분 시기 예안현으로 불렸으며 1914년 핵심지역이 도산면으로 바뀌고 낙동강의 남쪽 남은 지역은 예안면으로 이름을 계승하였다.

안동과 가까운 충주에 중원고구려비가 있었고, 상주에 속했던 문경의 봉암사에는 智證大師碑와 靜眞大師碑가 본래 위치에 현존한다. 도산면 태자리에 朗空大師 行寂을 기념한 栖雲塔碑와 그의 제자 通眞大師碑가 있었다. 太子寺의 두 고승 비는 도산면이 생기기 1000년 이상 앞서 세워지고 1181년에 세운 龍壽寺開創記와 함께 오늘날 도산면을 대표하는 세 가지 고려금석문이라 불릴만하다. 이들 금석문에서 주로 서운탑비만 관심의 대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합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비의 전래 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sup>1)</sup> 보존과정에서 공통점과 거시적으로 연구할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태자사에 있던 두 가지 비에 관한 비신이나 비편은 모두 현지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보존하고 있다. 낭공대사비는 1509년 영주로 옮겨다가 1914년부터 오랜 기간 경북공회랑에 있었다. 2005년부터 용산으로 옮겨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다가 2015년에야 국가보물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17년부터 서예실의 중앙에 전시되었다. 통진대사 양경의 비는 용

1) 李世澤, 『龍山誌』 1777년 완성, 육필필사본, 龍壽寺所藏(『경북 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pp.374-401)

수사에서 비편으로 보존되다가 2020년 1월 경북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용수사개창비는 일찍부터 부분탁본만 알려졌으나 전문의 탁본은 법첩으로 일본에 있고 전문의 판독은 용산지에 실렸음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용산지는 통진대사 비편과 같은 시기 경북도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이들 세 가지 금석문은 모두가 본래 위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유물이나 법첩으로 보존되었고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본래 위치를 조사하여 새롭게 위상을 바로잡을 과제가 남아있다.

용수사개창기에 앞서 세운 태자사의 두 가지 금석문은 모두 조계종 사굴산문에 속한 고승의 탑비이다. 용수사는 고려 예종시대에 창건되기 시작하여 화엄종 각화사에 속한 암자로 출발하였으나 의종시대에 사액된 사원이었다. 고려에서 사원은 종파별 지속성이 강하고 사상적 배경이나 사원이 주관한 국가의 제전에도 종파별 역할이 달랐다. 그러나 고려 후기 종파별 사상의 특성이 약화되면서 조선에 이르면 통합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도산면의 세 가지 고려 불교비문도 조선에서 종파별 특성이 사라진 반면 금석문의 보존에 있어서 서로 협력 관계가 강하였던 현상을 보여주는 특이한 사례이다. 신라말기 선종은 화엄사상에서 선종으로 전향한 고승들에 의하여 고려초기부터 선종 또는 이미 남종선을 표방한 조계종으로 혼용되면서 종파별 특성이 강하였고 사굴산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안동지역을 포함한 경상도 서북의 사찰은 고려의 화엄종 사원이 조선에서 보존된 사례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이 세 가지 비문을 종합하여 조선말기 불교계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과제이다.

도산면의 고려전기 세 가지 금석문은 내용이나 서체에서 뛰어난 사례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탑신에 추가될 유물이나 부가된 유적과 용수사개창기에서 확인되지 못한 비신이나 대좌와 이수 등을 조사하여 보충하고 본래의 위치에 보존하거나 재현하는 작업도 구상할 과제이다. 소중한 금석문의 가치와 예술성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보충해야 할 남은 과제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 II. 조선전기 지리지에 실린 도산면의 고려금석문

조선 전기의 관찬지리지로 가장 늦게 중종시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앞서 성종시대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관찬지리지의 하나이다. 책이름에 나타나듯이 전국의 관광자원을 돌아보도록 일반에게 공개된 지리지였다. 이 지리지는 국가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로 알선 시기에 완성된 세종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와 이보다 늦게 세조 시대에 보충한 『속찬지리지』보다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속찬지리지』는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고급정보가 실린 지리지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와 달리 관광자원으로 성종시대 완성된 『동국여지승람』과 구분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조선의 통치에 긴요한 정보가 실린 지리지는 『팔도지리지』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세종 8년 각도에서 완성하여 중앙으로 모아 세종 14년 『세종실록지리지』로 종합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실록』을 편찬한 다음에 기전체의 형식으로 실록의 끝에 실리고 변동사항을 약간 보충한 부분도 있었다.<sup>2)</sup>

軍役이나 賦稅는 국가의 기밀 사항이었다. 전국의 통치를 위한 기반은 호적과 田結과 특산물을 바탕으로 군역과 부세에서 비롯되었다. 호적은 軍役의 기반이고, 『세종실록지리지』는 국력을 나타낸 당시의 극비문서였고 오랜 기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조선 태조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겨우 6년 동안 나라를 운영하였다. 정치제도를 제대로 정리할 겨를이 없이 천도와 왕자난을 겪었고 짧은 기간 재위한 定宗이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다시 태종에 의하여 한성으로 定都하고 15년간 새 왕조가 나아갈 골격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가운영의 제도를 제대로 확립한 기틀은 태종보다 갑절 이상 재위한 세종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세

2) 中樞院調査課編, 『校訂世宗實錄地理志』,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葛城末治, 「校訂世宗實錄地理志解説」.

中樞院調査課編, 『校訂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서인원, 「조선전기 지리지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혜안, 2002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의 제정과 국방, 그리고 왕실과 관인의 생활을 위한 각종 특산물과 첨단의 수공업생산에 대한 정보의 기초가 모두 담겨 있는 통치의 바탕이 되는 긴요한 지리지였다.

국가의 정보란 일반에게도 일정한 부분을 제공하여 백성과 함께 행복을 누린다는 與民同樂의 정치공학이 필요하였다. 독서인과 일반백성에게도 관광자원으로 題詠과 祭場과 人物과 古蹟이 중요하였다. 특히 교육과 종교의 시설은 백성에게 욕구를 유발시키고 숨통을 터주는 촉진제였다. 지역과 관련된 시문학이나 관광자원을 추가해서 지식인으로부터 여론을 제공하는 민담과 노래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주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로 수렴된 다음 세조 때부터 『속찬지리지』가 완성되었고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기밀은 물론 약간의 제영과 유적에 관련된 사항이 실리는 여유를 보여주는 추가된 요소도 있었다. 성종시대부터는 『대명일통지』를 모형으로 『동국여지승람』으로 기획하면서 고적의 제영을 포함한 광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보충하고 공개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은 중종시대에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증보되었다. 여러 지리지 가운데 『세종실록지리지』의 선구적인 뼈대가 되었던 『팔도지리지』와 『속찬지리지』는 공교롭게도 8도 가운데 경상도에 대한 부분만 보존되었다. 이 때문에 경상도는 역사에서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연구의 기반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였다. 사회사는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를 비교하고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공개되기까지도 『속찬지리지』를 아울러 차이를 분명하게 살핀 다음에야 조선의 군역과 부세를 뒷받침한 지역별 자원과 기반과 인구와 전결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체계가 잡힌다. 이를 소급하여 고려와 삼국으로 확장하여 통시대 사회사의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지리지』만 가지고 호수와 인구통계를 계산하면 5인 미만의 소가족이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와 『경상도지리지』를 비교하여 보면 양인 남성의 人數만 수록되었고 여성과 노비의 口數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실제로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조금 더 많고 노비를 합치면 10인 이상 대가족의 戶口에 가깝다. 이는 신라시대부

터 조선 초기까지 호당 구성원의 수효와 상통하며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sup>3)</sup> 국가의 운용에서 호구의 통계가 중요하지만 가족 규모가 소가족인 호구보다 부세와 군역을 책임질 중간층의 호구가 국가의 안정에 필요하였다. 각 시대의 호수와 인구통계보다 호수만 실린 사례도 많다. 소규모 호구와 單丁戶는 국가의 운영에 장애가 되었다. 중간층이 소규모인 호가 많은 국가의 기반은 취약하였으므로 어느 왕조이고 국가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가족을 지향하면서 충효를 강조하여 국가와 가족을 안정시키려는 공통된 정책이 뒷받침하였다.<sup>4)</sup>

관광자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종합적으로 실렸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관광에 필요한 명승고적인 王陵과 佛宇와 祀廟와 旌閭碑 등을 실어서 때를 맞춘 행사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확장하여 전국을 연결한 교통과 관련된 거리와 고개와 다리와 들러서 설만한 樓臺와 숙박시설인 院宇와 僧舍도 실렸다. 무엇보다 관광자원이 늘어나고 누대에는 題詠까지 실어서 지식인의 평가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도록 지역별로 애향심을 유발시키고 국가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속찬지리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관광자료를 최대로 늘린 완성된 결과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이고 제영을 항목마다 찾아서 실었다. 반면에 국가의 기밀자료인 인구와 병정과 토지 결수 등은 소략하거나 제외시켰다.

금석문은 문화자원이고 관광자료에 속하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개략적인 목록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렸다. 도산면의 세 가지 금석문에 대해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략하나마 언급되었고 중요한 내

3) 신라의 村籍이라고도 불리는 西原京內總括表와 고려시대의 호적의 호별 가족의 구성과 규모,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의 호별 규모를 조사한 결과는 확대가족과 10인에 가까운 대가족이 많았다. 여기에 노비를 더하면 평균 10인이 넘는 공통점이 있었다.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pp.283-308.

4) 이런 지식은 소수만 알고 다수는 때로는 전혀 다른 지식을 정설이라 착각하기도 한다. 가족규모에서 양극화현상이 심해지고 중산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이념의 여하를 막론하고 국력을 약체로 만든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중세사회를 소가족이었다는 이론이 적지 않았으나 근거로서 지리지와 호적의 연구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용의 일부도 인용하였다. 전문은 지면상 실리지 못하고 분량이 커진 조선후기의 읍지에 전문을 실은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나 비신과 대좌와 이수수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부도와 석등과 관련된 다른 유물과 유차는 점차 없어져서 원형을 찾는 작업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도 세 가지 불교금석문도 해당 지역에 간단한 목록을 토대로 내용을 찾아 보충할 사항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잘 판독되어 정리된 낭공대사비 비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문의 미비한 부분과 위치, 그리고 몇 가지 더욱 조사할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Ⅲ. 낭공대사의 부도와 탑비의 위치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앞선 지리지에서 당시 태자사는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유일하게 태자사에 신라와 고려의 고승탑비가 각각 한 기씩 있었다고 적었다. 僧朗空碑와 僧通眞碑이고 이를 지은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었다.<sup>5)</sup> 필자는 2017년 가을 도산면의 私撰 地誌인 龍山誌의 해제를 의뢰한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복사된 자료를 받고 학술회의에 참석을 면제 받았다. 해제를 쓰기 위하여 부득이 이 자료를 소장한 용수사도 찾고 김생의 글씨가 가장 잘 남아있는 낭공대사비의 원래 위치를 확인하고자 답사를 떠났다.

비의 위치는 봉화로 알려졌지만 태자사는 오늘날 행정 편제로 도산면 태자리에 속하였고 태자사지의 뚜렷한 흔적은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태자사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흔적은 민가와 민묘에 가려있고 도지정문화재자료 68로 지정된 “태자사지 귀부 및 이수”라는 표지뿐이었다. 나머지 절터와 유적은 민가가 있고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었고 조선시대의 유적인 水雲亭뿐이고 태자사의 중심건물이 있었던 위치조차 찾을

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奉化縣 佛宇 太子寺 “在太子山 有新羅兵部侍郎 崔仁浼所撰僧朗空塔銘 高麗左諫議大夫金審言所撰僧通眞塔銘”. 다른 자료가 없었으면 朗空이나 通眞이 범명으로 간주될 염려도 있다.



수가 없었다. 태자사지 귀부는 낭공대사의 비신이 꽃혔던 자리로 보았던 견해도 있었고 통진대사 귀부는 봉화의 각화사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sup>6)</sup> 현존하는 낭공대사비 비신의 폭과 두께가 비신을 꽃았던 귀부와 이수의 폭보다 좁아서 이미 논란이 있었으나 뚜렷하게 지적한 논문은 없었다. 백월비가 보물로 지정된 시기는 2015년이고 본래 국보로 지정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등급 낮게 결정되었는데 이런 처리는 매우 드물다. 비의 본래 위치나 부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초기의 국보나 보물조차 저술이나 논문도 없이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

백월서운탑비는 낭공대사 행적이 입적한 다음해인 917년 崔仁澆이 지었다. 그러나 이 탑비는 신라에서 세우지 못하고 37년 지나 광종 5년(954)에야 세웠다. 낭공대사가 입적한 석남산사와 탑비가 있었던 태자사가 같다면 본래 세웠던 부도와 후에 세운 탑비의 위치는 다를 수 없다. 같다는 견해도 있지만 37년 후에 탑을 세우면서 석남산사는 경주에 가까운 곳이고 양조국사인 그를 경주의 가까운 절에 머물게 하였다가 입적하였다는 내용이고 오늘날 절터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신라에서 비문을 지은 다음 37년간 탑비를 세우지 못하였을 정도로 시대상황이 여러 차례 소용돌이쳤던 시기였다. 비움기에는 광종 5년 태자사에 탑비를 세웠다고 자세하게 실었다.

태자사와 석남산사가 같지 않다면 처음 세운 부도와 후에 세운 탑비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대체로 탑비와 부도가 같은 곳에 세우므로 부도를 석남산사에서 태자사로 옮겨서 탑비를 조성하였다는 해석도 가능

6) 각화사에는 동남으로 두 개의 오래된 비의 대좌가 있다. 왼쪽에는 귀갑의 문양에 王과 臣의 글자가 조각된 귀부대좌와 직육면체의 소박한 대좌가 각각 보존되었다. 귀부는 고려전기의 국사나 왕사의 비를 대좌로 전형적인 형태와 상통하고 이 귀부의 홈에 조선후기의 각화사사적비를 세우고 양회로 접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해석에도 통진대사비의 귀부라고 명명하고 경북유형문화재 189호로 지정하였다. 두께가 19cm의 홈에 화엄종 각화사에 선종 사굴산문에 속하는 두께가 16cm의 통진대사 양경의 귀부가 있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려의 귀부에 조선의 사적비를 보존한 보기 드문 재활용의 사례에 속한다.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비를 세울 당시에 썼다고 짐작되는 비음기에 없으나 생략된 내용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선종사원은 산사로도 불린 사례가 있으며 석남사로 줄여서 불릴 수도 있다. 실제로 석남사는 울산에도 있으나 낭공대사의 부도에 대한 유적도 확인되지 않았고 석남사에서 태자사로 옮기지 않았다면 탐비만 태자사에 세웠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태자사는 고려가 신라를 통합한 다음에 수도를 연결하는 경주와 개령의 지름길에 위치하여 중요한 사원이었다. 사원이나 고승의 탐비란 중요한 도로에 가까울수록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컸다. 입적한 석남산사는 신라의 중요한 도로에 가까이 위치하였고 태자사는 고려로 후삼국이 통합한 다음 새롭게 부각된 도로에 새롭게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래의 낭공대사비음기에 의하면 낭공대사의 수제자인 양경이 태자사에 세우도록 주도하였고 이를 실현시켰다고 적었다. 태자사에 있던 낭공대사탐비는 글씨와 내용에서 모두 중요하다.

낭공대사의 부도탐비는 측면에 쓰인 李沆이 쓴 조선시대의 추기에 의하면 태자사에서 1509년 영주 관아로 옮겼다. 이 비신은 귀부에서 뽑히고 이수와 분리되었고 영주의 관아의 부분인 자민루 아래에 있다가 1914년에는 경복궁회랑으로 옮겼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구로 확장되고 다시 옮기고 2015년 4월 22일 보물 1877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지정한 명칭도 奉化太子寺朗空大師塔碑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도산면 태자리는 태자사에서 비롯되었고 고려초기에도 당시 이름인 吉州에 속하였음은 최근 통진대사 양경의 비편이 발견됨으로서 더욱 확고하게 확인되었다. 낭공대사의 법명은 行寂이고 생존연대도 뚜렷하고, 비문의 찬자는 당대 문장으로 평가받았던 崔仁浣이고 낭공대사의 門下法孫인 釋純白이 세웠다.

이 비문을 지은 다음 왕조가 바뀌고 고려가 통합한 다음에도 20년 지나 세웠으므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먼저 비문의 전면과 후면의 글자를 집자한 시기가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 실제로 비의 전면과 후면의 글자가 같은 김생의 글자를 집자하였지만 후면은 크기가 고르지 않

을 정도로 특별히 다르다. 이는 후면의 집자한 인물이 전면을 집자한 단목과 다르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단목은 비문을 지은 직후 전면만 집자했다고 짐작된다. 신라말기 전란을 거쳐 광종초기 비를 세울 무렵에는 이미 김생의 글씨가 전면처럼 같은 크기의 글자로 집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부족해졌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글자를 같은 크기로 집자하여 쓰지 못하고 실제의 크기를 반영하였다는 정직한 모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후면은 최인연이 살았던 시기의 글도 아니고 세울 당시의 내용이다. 이 부분은 낭공대사가 입적할 당시 유학하여 임종을 맞지 못하였던 수제자인 양경의 생애에 대해서 의외로 자세하다. 비를 세운 시기에 양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승을 추모한 비를 세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양경은 통진대사이고 다음에 소개할 비편의 보충되는 자료로서 상통하는 내용보다 더욱 사제한 부분이 있다.

낭공대사 행적(832-916)은 사굴산문의 개산조인 崛山寺 通曉大師 梵日(810-889)의 제자로서 낭원대사 개칭과 함께 사굴산문을 신라와 고려로 후삼국시대를 연결시킨 고승이었다. 행적은 최씨로서 신라말기의 양조국사로 기여하였다. 같은 통요대사 범일의 제자인 朗圓大師 開淸(835-930)은 왕위계승에 실패한 김주원의 후손이었다. 성씨까지 왕씨로 바꾸면서 고려건국에 협조한 王順式(王筍植)은 낭원대사를 도운 단월의 하나였다.<sup>7)</sup> 왕순식은 낭공대사보다 후까지 생존하면서 포석정사건으로 죽음을 당한 경애왕(재위 924-927)의 비극을 보고 더욱 왕건의 협조자로 굳어진 인물이었다.

낭원대사는 신라의 국사로 예우를 받으면서도 왕순식과 함께 태조 왕건으로 기울어진 가혹한 갈등의 시대를 살았다. 출가한 스님이야 세속의 성씨나 계보나 정치를 초월한 세속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혹한 시대를 종교로서 극복하려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이런 갈등은 불교의 교조인

7) 사굴산문이 고려계와 신라계로 양분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 논문에서 자세하게 지적하였다. 金杜珍, 「新羅下代 崛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 『省谷論叢』 17, 省谷文化財團, 1986,

석가모니도 자신의 세속뿌리인 카필라가 마가다에 복속되는 아픔을 맛보았으나 불교의 교조로서 이를 극복하였다.

낭원대사 개청과 낭공대사 행적은 세속의 기원이 진골과 육두품으로 달랐지만 왕족의 후예인 낭원대사와 통진대사 양경은 신라보다 고려에 힘을 보탰지만 최씨인 낭공대사는 오히려 변화가 없이 신라를 위하였다. 사실상 사굴산문이 시작된 강릉은 궁예가 초기에 장악하였던 지역이고 왕건이 궁예의 뒤를 이어 기반으로 흡수하였다고 짐작된다. 다만 대부분 왕조를 시작한 승리자에게는 도덕을 갖춘 추대라는 형식이었으므로 명주는 신라의 영역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왕건에게 기여한 지역이었다. 낭원대사는 경애왕이 국사로 받들었던 고승이었으나 앞선 시대 두 왕의 국사였던 낭공대사는 후에 일어나는 고려가 아닌 몰락하는 신라를 위하여 일관하였다. 낭원대사는 왕건과 경애왕을 결합하여 후백제 견훤을 견제하였으므로 견훤의 심기를 몹시 거슬렸고 이에 견훤은 경주를 급습하여 경애왕에게 참담한 최후를 안겨주었다.

낭공대사 행적은 낭원대사 개청보다 생몰연대가 앞서고 두 왕의 국사란 화려한 경력과 이미 지어놓은 비문과 집자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기울었던 낭원대사보다 탐비가 늦게 건립되었다. 이를 세우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은 광종초기 개경 건성사에 머물던 양경을 중심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건립하기까지 노력한 결실이었다고 하겠다. 이 비가 금석문에서 후에도 더욱 유명해진 원인은 대사의 문하승인 釋端目이 명필 김생의 글씨를 집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낭원대사 탐비보다 늦은 시기인 954년(광종 5년)에야 세웠다는 사실은 깊이 음미할 대상이다. 광종은 이 비에서 고려란 왕건이 세운 처음의 국호가 아니고 고려를 계승한 후고려라고 명시하였다. 이 부분은 어느 비문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광종의 자주적인 방향을 당시의 표현으로 음미할 가치를 가진 기념비와 같은 내용이다.

낭공대사비의 후고려란 왕건이 건국한 고려보다 앞선 고려를 명시한 셈이고 후고구려를 호칭한 일이 있는 궁예를 의미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리고 앞선 고려란 태조왕건이 호칭한 고려일 가능성

은 없다. 광종이 태조왕건의 국호와 구분하려고 굳이 후고려란 국호를 표방하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후고려란 고구려의 고려를 의미하였다고 해석해야 한다. 앞선 고려는 대박산으로 천도한 장수왕 이후 구를 빼버린 고구려의 후신 고려를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낭공대사비는 광종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성기를 누리면서 한강유역의 백제와 낙동강유역을 차지한 신라에 대해서도 패권을 확보하였던 장수왕시대의 계승을 선포하였다고 확인시킨다. 광종은 고려태조의 고려보다 더욱 자주적인 장수왕시대를 표방하고 이후 경종과 성종은 송의 연호를 쓰면서 태조와 광종의 자주적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최승로는 광종시대에 불교를 통한 자주성을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유교와 신라의 외교정책으로 바꿨다. 거란의 침입을 받고 이를 철회하기 시작하였고 서회는 거란의 침입을 받고 답판에서 광종시 고구려의 계승을 강조하였다. 현종에 이르러 불교와 지역균형을 감안한 정책으로 고려의 기틀을 잡았다.

북송이 남송으로 바뀌기 직전 서장관으로 고려의 문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보충하여 완성한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고려가 앞선 고구려의 계승을 철저하게 강조하였고 그림은 없어지고 설명문만 전한다.<sup>8)</sup> 고려와 자신의 위상을 황제로 높이려던 광종은 고려 태조의 진전사원인 봉은사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태조의 기일과 연등회의 정점을 두 차례 국가의 행사로 수행하였다. 거의 매년 국왕이 참석한 사실에서 이 무렵 황도의 선포와 함께 후고려를 표방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였고 고려의 위상을 끌어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낭공대사비는 김생의 집자에 못지않게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으로 확정하고 서도를 부각시킨 기념비였다고 해석도 가능하다.

비를 세운 광종 5년의 상황을 알리는 백월비의 후면에는 9인 제자가 두 글자로 주지한 사원을 줄여서 나타냈다. 태자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주지하였던 낭공대사 문도는 비를 세운 후면의 맨 끝에 실린 실무자

8) 후고려는 무신집권시대에 신라의 종을 재현한 흥륜사종명에도 명시되었으나 지금 종은 현존하지 않으나 명문은 전한다.

보다 낭공대사를 생전에 도왔고 가장 두드러진 제자였다. 석남산사는 낭공대사가 마지막으로 주지하고 그곳에서 입적한 사원이었다. 그러므로 국사가 하산한 사원에 비를 세우는 고려의 전통과는 맞지 않으므로 석남산사가 곧 태자사로 해석하기 쉽지만 이를 같은 사원이라 간주하기는 어렵다. 석남사에서 입적한 낭공대사의 탑비를 고려에서 유력한 계승자의 출가한 사원인 태자사에 세웠다고 하겠다. 가장 의문은 그의 생전에 날개처럼 도왔던 9인의 제자가 광종 5년 주지한 사원에서 석남사와 태자사를 구분하였으므로 같은 사원이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낭공대사 행적의 탑비가 서있던 태자사는 本正이 주지였고 迥閑은 석남사의 주지였다고 구분하였다. 그가 만년에 주지하고 탑비를 세울 당시 주지와 관련된 낭공대사의 문도를 기록하였으나 양경을 비롯하여 9인의 문도들은 개경과 전국의 유명사원에 흩어져 주지하면서 스승의 비를 세우는 외호의 역할을 하였다고 밝혔다.<sup>9)</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낭공대사의 제자와 주지한 사원

낭공대사 9인 제자	절의 위치	의견	전거
龍潭 式照	개경 天摩山	龍潭寺	고려사
乾聖 讓景	개경	제석재가 열린 곳	고려사
鶯囀 惠希	전라 구례	鶯谷寺?	
宥襟 允正	미상	郁錦寺?	
淸龍 善觀	충주	靑龍寺	
靈長 玄甫	미상	靈藏寺?	
石南 迥閑	미상	石南山寺	
嵩山 可言	해주	海州 嵩山寺	고려사
太子 本定	吉州	太子寺	통진대사비

위와 같이 네 글자에서 끝의 두 글자는 범명이고 앞의 두 글자는 호가 아니라 주지한 절의 이름이고 석남산사와 태자사는 분명하게 구분하

9) “且國師碑之與錄可記而未記者曰 龍潭式照 乾聖讓景 鶯囀惠希 宥襟允正 淸龍善觀 靈長玄甫 石南迥閑 嵩山可言 太子本定 右九師者 國師存日羽翼”.

여 적었다. 岩(巖)과 石은 다르다. 암은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힌 바위로 채석을 거쳐 石으로 가공된다. 석이란 고인돌이나 선돌처럼 인간이 모여서 움직여 만든 기념물이므로 평지에 설치한 立石이나 支石이 이에 해당된다. 인간이 모여서도 움직이기 어려운 돌은 바위이고 악은 바위가 봉우리에 위치하여 뾰족한 모습이다. 석남산사는 경주의 남산이나 태자사에서 가까운 청량산에 있는가 염두를 두고 찾아보았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울산의 석남사가 석남산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고승의 부도와 석남사적을 조사하였으나 이를 연결시킬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sup>10)</sup> 이와 함께 고인돌이 모인 대구에서 금호강을 따라 금호읍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sup>11)</sup> 향토사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고승의 탑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입적한 곳에서 다비하였다. 석남산사에서 입적한 시신을 굳이 태자사에서 다비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때문에 석남산사와 태자사는 같은 사원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석남사와 태자사는 분명 다른 곳이므로 석남사의 위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라의 고승이 입적한 곳에 부도를 세우고 계승자가 주지하는 사원에 부도와 탑비를 세운 사례로서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양경이 스승의 비를 신라 서울 경주에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있던 석남사보다 새롭게 부각한 경주와 개경을 연결하는 시대의 큰길인 태자사에 세우도록 주선하였다는 위치의 변화가 감지된다. 태자사는 皇都인 개경과 신라의 서울이었던 東京을 연결하는<sup>12)</sup> 새롭게 등장한 큰길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낭공대사의 제자인 본정이 주지한 태자사

10) 필자는 석남사에 문의한 석남사적의 창건설화에도 낭공대사의 흔적은 없었다. 이 절에 오래된 부도가 낭공대사의 부도일까 의문을 가졌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사자산문에 속한 사원이었다는 해석이 있으나 신라에서 산문의 구분이 없었다는 새로운 이론이 통설이 확립하지 못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11) 이런 추정을 하는 근거는 삼국사기 신라약지에 石南思內란 음악이름이 보인다. 石南思內란 石南寺思腦로 해석하여 석남사에서 기원한 향가의 하나로 추정될 수 있다.

12) 동경의 기원에 대한 사서와 『慶州戶長先生案』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다. 개경인 皇都和 평양을 나타내는 西京과 鎭京 西都의 명칭의 기원과 용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에 세워서 사굴산문의 중요한 거점으로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만 비를 세울 때에 석남사에 먼저 세웠던 부도를 태자사로 옮기고 가까이 낭공대사탑비를 세웠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낭공대사는 해공왕과 신덕왕의 국사로서 바로 앞선 낭혜화상 무염과 더불어 양조국사인 사실도 상통한다. 김생 글씨의 집자이면서 마치 김생이 직접 쓴 글씨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서예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집자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나는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단목이 김생의 운필에 정통하고, 다음은 단목이 자유자재로 김생의 글씨를 집자할 풍부한 자료가 있었다는 상황이어야 가능하다.

태자사는 한때 才山縣(오늘날도 봉화군 재산면이 중심)에 속했고 같은 지역의 청량산을 중심으로 다룬 청량지에서 언급되었다. 성주사 낭혜화상 무염 비는 보령에 있고 최치원이 지었고 성주비라 불리기도 한다. 행적의 비는 줄여서 백월비라고도 불리며 제대로 말하면 白月栖雲塔碑이다. 백월비는 서예로는 성주사비보다 명성이 높지만 주인공의 생존시기가 한 세대 늦고 연구자의 관심이 높지 않지만 필자가 보기로는 사료로서도 결코 낮추 평가하기 어려운 신라 말기의 긴장된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한다.

낭공대사백월비는 고려에서 오랜 기간 번영한 사굴산문과 연결되며 낭혜화상이 개산조인 성주산문은 오래 계승되지 못하였다. 다만 백월비를 지은 시기와 비를 세운 시기의 차이가 심하고 내용에도 세운 시기를 반영한 변화가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할 점이 많다. 행적은 굴산사 통효대사 범일의 수제자이다. 굴산사는 사굴산문의 조사가 개창한 사원이고 범일은 개창조이다. 祖堂集에 의하면 범일의 비도 있었지만 사라진 경위도 알려져 있지 않고 비편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백월비의 탁본은 김생의 글씨를 아끼는 서예가에 의하여 여러 곳에서 보존되었다. 그 때문에 조선 전기 임진왜란 훨씬 전(1509년)에 비신을 받친 귀부에서 분리하여 榮州 관아의 字民樓 아래로 옮겨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영주로 옮



겨놓기 앞서 탐비가 있었던 태자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의 측면에 후기로 새겨놓은 영천군수 李沆의 찬문과 朴訥의 서각에 자세하다. 글씨는 단목이 집자한 김생의 글씨보다 오히려 크지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약하므로 묘한 대조를 이룬다.

백월비의 현재 모습은 비신만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었다. 대좌도 이수도 제액도 확인되지 않았다. 비신의 상부에는 이수의 홈에 밀착되어 없었던 비신보다 좁게 가공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비신의 석질은 여러 번 탁본한 횡수에 비례하여 마모된 정도를 간직하고 있으나 아직도 비교적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단단하다. 비석의 경도는 높으나 좌측에서 15도 정도 우측 아래로 석질의 결이 있으며 당시의 다른 비와 비교해도 단단하고 두꺼운 편이다. 결을 따라 약간 중간의 아래쪽으로 갈라져서 두 동강이 났던 흔적을 접착하였다.

이항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문집이 없고 다른 기록이 적다. 그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은 농암 이현보의 종가에서 보존해온 애일당구경첩에 문인 43인이 남긴 시에서 洛西浩叔으로 실린 인물로 확인되었다. 낙서호숙이 바로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 김질, 심정과 함께 가해자였던 이항이라는 사실이 이현보 후손의 노력으로 밝혀졌다.<sup>13)</sup> 이항을 비롯하여 이들은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 배척되었지만 젊은 날에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선비의 면모가 입증되었다.

이항은 백월비를 태자사에서 영주관아로 옮긴 장본인이고 이 비의 가치를 잘 알고 아꼈음에 틀림이 없다. 이 비는 글씨가 그림을 비롯한 다른 예술보다 중요시한 시대에 내용보다 서예로 명성을 가졌음을 자세하게 실었다. 이항은 이 비에 대하여 “희귀한 보배가 풀숲에 묻혀서 들판의 소가 비벼대고 목동이 불을 피워 훼손될까 염려되어 전 참봉 권현손과의견을 같이하여 字民樓 아래로 옮겨서 난간을 둘러 탁본을 하려는 이들만 들어가게 하였다.”고 밝히고 보존에 노력을 기울인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공적으로 기록하였다.

13) 이성원,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푸른역사, 2006. pp.122-123.

이항은 본래 위치에서 옮길 당시 태자사가 폐사로 변하여 황량한 들판으로 변했다는 소식도 전하였다. 이 절이 폐사로 변한 동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이항은 놀랍게도 안평대군을 언급한 다음과 같은 첫머리가 더욱 깊은 인상을 준다. “나는 젊었을 때에 『匪懈堂集古帖』에서 김생의 글씨를 보았다. 용이 날고 범이 웅크린 모습이 좋았으나 세상에 전하는 글씨가 적었다. 영주에 부임하고 이웃 봉화의 옛 절터에 비문이 있다는데 김생의 글씨라 했다.”고 앞에 적었다. 안평대군이 모은 법첩에서 이 비의 탁본을 보고 이미 가치를 눈여겨보았다는 설명이다.

세종 때는 고승의 생애가 실린 전기인 탐비의 내용보다 관인의 글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간의 고승 탐비를 탁본하여 법첩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 법첩을 모아 안평대군이 『集古帖』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예는 시문과 함께 과거시험과 관인으로 승진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항은 이러한 첩단의 수련과정을 거쳤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에 의하여 역적으로 처형되었으므로 거론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이항은 훈구세력이 금기하였던 금성대군이 반역을 시도했던 지역의 군수로 민심을 살피면서 역적으로 처단된 안평대군을 언급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실세임을 과시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본래 지방관이란 집권자를 반대하는 세력의 후환을 살피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언급하기를 기피하는 인물을 미끼로 정보를 낚아내는 수법도 사용한다. 태자사가 황폐화되는 과정은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제거하는 과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불교를 보호였지만 반역과 관련된 세조에 반감을 가진 사림을 처단하면서 그곳의 사원과 불교유산에 대하여 황폐화시켰을 가능성이 짐작된다. 태자사는 이항이 영주군수로 부임한 시기에 비신마저 풀에 파묻히고 부도탑도 도괴되어 나뒹굴었다. 황량한 절터에는 목동이 소를 몰고 한 번의 들불이 지나가면 농민의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황폐화되었고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었다는 상태였다.

태자사가 문헌의 기록에서 나타난 지리지는 『속찬지리지』부터이다. 이 책에는 奉化의 縣南太子山里에 太子院이 있었다고 하였다.<sup>14)</sup> 태자원이

란 사원의 부가적 시설로서 국가의 통신을 협력하는 역원으로 태자원만 살아남고 법당이 먼저 없어지고 본말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자사는 중요한 도로에 위치하였으므로 국가에서 관리한 숙박시설만 남고 몰락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태자사는 성리학이 정착한 서원이 생기면서 없어진 절이 아니라 이보다 앞서 세조의 집권 과정에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의 처단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예의 성인으로 불린 김생에 대한 예우로 낭공대사 탐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行寂의 行績은 낭혜화상 무염의 뒤에 두 왕의 국사이고 어려웠던 신라 말기에 국가와 중생을 염려하면서 난세에도 고승으로 곳곳하게 처신하였고 그의 계승자는 무염의 후예보다 훨씬 뚜렷하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화려한 경력보다 시대의 난관을 극복한 노력이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처럼 오래 남을 수도 있다.

행적의 비문은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긴다. 하나는 이 비를 최인연(868-944)이 짓고 김생(711-791)의 글씨로 석단목의 집자가 언제 이루어 졌느냐의 문제이다. 단목의 자료란 오직 이 비의 집자뿐이다. 백월비는 태자사에 있었고 봉화에 속한다고 전하였다. 이 비는 영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sup>15)</sup> 임진왜란도 아니고 그보다 83년 전이므로 이를 본 주민들이 불교가 얼마나 미약해지고 있는가를 목격했다고 하겠다.

태자리는 청량산의에서 서쪽에 있고 가깝다. 김생은 청량산에서 글씨를 연습하였고 조선후기에도 이곳에 김생이 쓴 사경이 있었다고 전한다. 청량산은 봉화의 재산현(才山縣)에 있었으나 지금은 봉화군 영호면에 속한다. 조선의 현이란 오늘날의 군으로 유지되는 곳도 있으나 대체로 그보다 절반 정도인 몇 개 면 정도의 크기가 많다. 지금도 봉화군에는 재산면이 있으나 많은 부분이 다른 면으로 떨어져 나갔고 태자사는 지금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에 속하고 봉화 남서의 경계에 가깝다.

14) 『慶尙道續撰地理志』 奉化縣.

15) 어떤 해석에는 백월비를 永川으로 옮겼다고 하지만 榮川이 맞다. 州와 川은 고을의 위상에 따라 변화를 반영한 뿐이고 본래 의미는 榮과 永에서 판가름된다.

필자는 2017년 음력 7월 보름 백중의 다음 날인 양력 9월 6일 오랫동안 별다른 태자리를 찾았다. 용수사를 복원한 주지스님의 안내를 받아 찾았으나 혼자 찾아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태자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도 지정 68호 태자사지 귀부 및 이수”라는 표지가 있었다. 비신이 없이 귀부에 이수만 올린 바로 코밑에 무덤이 있고 서쪽 가까이 민가가 있어서 오히려 보호되는 형편이었다. 귀부와 이수가 예상보다 규모가 작았다. 귀부에서 다시 20m쯤 북쪽으로 나와서 서쪽으로 꺾이는 지점에 물탱크를 받치고 있는 석물의 중간부분이 있었다.

원통형 부도의 중간 부분으로 보였다. 석조 대좌는 보이지 않고 물탱크의 받침으로 고려 석조유물과 현대의 플라스틱 물탱크를 올려놓은 실용으로 기묘하게 재활용되었다. 여기에 귀화식물인 삼풀이 널쭉져서 따가운 초가을의 노염을 식혀주고 있었다. 서리가 내리면 일년생 식물로 장식했던 초록의 가리개가 사라지고 낮은 각도로 파고드는 겨울의 햇볕을 담뱃 받으며 석물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추정되었다. 석물의 가운데 토막은 처음에는 부도로 보였을 정도로 잘록하고 검은 이끼에 덮여 있었다. 도 지정 문화재자료 68호의 귀부와 이수에 실린 고승의 유체를 품었던 돌보자기인지 아니면 낭공대사의 부도를 석남사에서 옮겨 세운 석물이라 보기에는 규모가 작고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실제유물에 밝은 박물관장을 역임한 두 분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초겨울에 동행하여 부도로 보이는 일부만 남은 석조유물을 보여주고 의견을 들었다. 그분들은 연자매일 수도 있다고 충고하여 부도라는 처음 보았을 때의 추정을 무산시켰다. 다음해 이른 봄에 다시 찾아 겨울 동안 비워둔 물탱크를 가볍게 내리고 더욱 철저하게 관찰하였다.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규모는 아니지만 부도의 탑신에 해당하고 낭공대사가 아닌 통진대사 부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추정이 더욱 강하게 살아났다.

낭공대사의 부도는 본래 석남산사에 다비하지 않고 생불로 오셨던 사실이 그의 비문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통진대사는 태자사에 주지하던 낭공대사에게 출가하였고 석남산사보다 태자사가 경주에서 개경으로 이동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곳에 탐비를 세우면서 석남산사의 부도에서 유해를 다비하여 소형으로 부도를 조성하였는지 통진대사 부도인지 앞으로 전문가의 엄밀한 조사와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부근을 발굴하여 철저하게 법당과 부도의 석등, 남아 있을 통진대사 비편도 다시 추가하여 확인하는 정밀발굴조사를 기다릴 과제로 남긴다.

#### IV. 통진대사낭월보광탐비 비편과 귀부와 이수

통진대사 비문은 2017년 9월 5일과 6일 도산면의 답사에서 알게 되었다. 이틀간 성리학의 거봉인 퇴계 이황의 행적이 살아있는 도산면을 답사하고 이황의 후손이 지은 『龍山誌』와 관련된 불교유적을 돌아보기 위하여 용수사에 들렀다가 우연하게 주지스님의 배려로 고이 간직한 비편과 탁본을 관찰하였다. 용수사는 이황이 출생하고 성장한 온계의 북쪽 용두산 중턱에 위치하였다. 용수사는 이황이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입사하기까지 생애의 초반에도 자주 들렀던 공간이고 그의 조카도 이곳에서 공부하였던 사실을 밝힌 시가 적지 않다. 또한 이황보다 한세대 앞선 고관으로 만년에 장수를 누리며 살았던 이현보 선대의 선산과 유적도 부근에 많았다.

용수사는 1896년 의병이 일어나 이를 진압하던 과정에 불타버린 다음 100년 지나 원행스님이 다시 중창하였다. 용산지는 잃어버린 陶山志를 확대한 淸涼志와는 달리 이세택이 남긴 옥필 원본이었다. 용산지의 범위는 용두산 용수사를 중심으로 이황의 중반기까지 터전이었던 溫溪(지금은 溫惠里라고 불림)와 이현보의 여러 선대가 살았던 공간인 분천리를 포함하였다. 용산지는 시문 중심의 山志이고 용수사개창기가 거의 전문이 판독되어 실렸다. 이웃한 도산은 용산과는 달리 이황의 후반기에 거주하고 활동한 지역이다. 이황은 직접 도산기를 지었고 현존한다. 도산기를 보충하여 이황의 6대손 이수연이 지었다는 도산지가 없어졌으므로 이황의 8대손인 李世澤이 지은 청량지와 용산지를 중심으로 도산면

전체의 불교계와 이황과의 관계만을 살피기로 하였다. 그동안 한국국학진흥원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사상과 활동이 정리되었고 불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묻힌 상황이었다. 이에 처음으로 경북불교의 재발견이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고승부도와 탐비의 건립은 후삼국을 통합한 다음에 통일을 향한 민심의 수습을 위하여 불교의 교화가 필요했다는 상황을 반영하므로 중요하다. 역사의 서술도 기록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고려 초기 고승뿐 아니라 신라의 고승에 대해서도 이를 현창하여 부도와 탐비를 세운 사실이 앞선 시기나 후에 나타난 결과보다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통진대사 양경은 스승인 낭공대사처럼 국사로 책봉되었던 고승은 아니었다. 신라가 고려에 귀순한 다음에도 개경과 동경의 길목에 위치한 태자사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신라의 고승비를 세우도록 힘쓴 통진대사를 추앙하여 신라지역의 민심을 얻어야 하였다. 후백제지역이었던 영광출신 金審言이 짓고 글씨까지 써서 비를 세우는 일이 통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짐작된다. 비편의 확인은 용수사에 소장된 용산지의 연구와 관련이 컸다.

용수사개창기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하여 대좌와 옥개석이나 비편은 본래 소재지에서 발견되었거나 위치가 확인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용수사를 찾았다. 용수사개창기를 세웠던 위치와 비갯이나 대좌의 비편도 없었고 본래 위치에 대해서도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를 문의하기 위하여 찾은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용수사의 주지의 방에서 고려시대 전기 서체로 쓴 비편을 보았다. 용수사개창기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살폈으나 이와 내용이 달랐고 그보다 앞서 유행한 서체였다. 1896년 화재로 사라진 용수사를 1991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여 1996년 준공하는 과정에 법당의 서쪽에서 발견된 비편이라 하였다.

용수사는 고려시대인 1146년(의종 즉위)에 봉화에 있던 覺華寺 주지인 誠源이 庵子를 지으면서 시작하였다. 이후 1164년 왕명으로 賜額을 받아 화엄종단의 독립사찰이 되었다. 용수사는 조선 말기 불타버린 뒤 100년 넘어 다시 중창되었다. 이번 비편의 판독으로 通眞大師가 讓景의

호이고 탐호는 朗月寶光이었다. 비편에서 그의 출생일과 스승 낭공대사(行寂)가 입적하였던 916년 당시 後唐에 유학하였고 928년에 귀국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는 견훤과 왕건이 벌인 안동전투에 고려가 우세하도록 도왔고 이 사실은 용수사개창기의 서두에도 수록된 내용과 양경의 비문이 일치된다. 무엇보다 비문은 생애의 순서대로 실렸으므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음에도 연보처럼 시대별로 순서가 배열되었다. 양경이 75세였던 만년인 954년 낭공대사의 탐비를 세웠고 그 탐비의 후면에 양경의 행적이 간략하게 실렸다. 통진대사 비편과 낭공대사탐비의 후면을 종합하면 굴산사를 중심으로 사굴산문을 개창한 通曉大師 梵日과 낭공대사의 뒤를 이은 양경에 이르는 삼대 계승자와 활동이 선명하게 정리된다. 범일이 개산한 사굴산이 있던 강릉에 멀지 않은 곳에 세운 朗圓大師 開淸과 개경부근에서 사굴산문의 다른 갈래의 계승관계와 대비되는 중요성이 있다. 다만 비문 전체의 2할 가량만 비편으로 남아서 아쉬움이 크다. 이 비편이 용수사에서 보존하기 시작한 시기와 앞으로 연구에도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다. 태자사에 경북도지정 문화재자료 68호로 지정된 귀부와 이수에는 비신의 폭과 두께가 낭공대사비보다 좁으므로 그의 제자인 통진대사낭월보광탐비와 같으므로 귀부일 가능성이 크다.

낭공대사의 부도와 탐비의 본래 위치와 귀부와 이수를 찾는 작업은 양경의 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양경의 나머지 비편을 찾아서 복원하는 작업이 남았다. 무엇보다 현지를 철저히 보존하고 지표 조사와 태자사의 법당을 비롯한 사찰의 유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자체와 박물관이나 서예의 연구자와 협력을 합쳐 진행할 필요가 크다. 비편이 발견된 곳과 비가 섰던 곳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옮겼을 가능성의 두 가지를 배려해야 한다. 비가 본래 섰던 곳이라면 귀부와 이수과 부도 등이 가까운 곳에 있게 마련이고 나머지 비편도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양경의 비편과 같은 서체의 다른 비편이나 관련된 귀부와 이수 등 부가된 유물은 없었다. 이로 보면 이 비편은 어느 시기에 먼저 폐사였던

태자사에서 용수사로 옮겨서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용수사 대웅전의 서편에는 연대 미상의 下馬碑와 자연석에 가까운 절의 경계를 표시한 간단한 글자가 수록된 적지 않은 석물이 보존되었다. 양경의 비편은 용수사에 의병이 집결했던 곳으로 이 절이 불타기 전에 이곳에 옮겨 모아놓은 유물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태자사가 먼저 폐사가 되고 그곳에 있던 비편을 용수사에서 수습하였으리라 짐작하였으나 정확한 시기와 수습하여 옮긴 경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존하는 탑비가 있던 귀부와 부도의 탑신이 있던 위치는 지금도 태자사의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단부와 옥개석, 현존하는 소형 귀부와 양경 비편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고 비신의 잔편을 확인하는 작업 작업이 이루어져야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겠다. 비편의 석질은 편마암이라기보다 사암에서 변성암으로 견고하여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풍화가 적었다. 다만 모서리에 가까운 부분은 더욱 마모가 심하므로 오랜 기간 옷을 세탁하는 빨래판이나 곡식의 타작에 태질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되었다.

갈라진 표면은 거칠고 경도와 무게의 비중도 높은 석재였다. 대체로 석질의 경도는 무게와 비례하고 옥에 가까울수록 단단하고 깨어진 모서리의 마모가 적다. 두께는 16cm이고 세로와 가로로 가장 긴 쪽이 각각 90cm와 80cm인 연회색의 비편이었다. 전면에만 글자가 쓰였고 글자크기는 낭공대사비보다 두께가 10cm정도가 좁았고 현존하는 태자사지 귀부의 이수,의 홈과 거의 같은 폭이므로 통진대사의 귀부와 이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었다. 탁본으로 서체를 살핀 결과 끝이 예리하고 고려 초기에 유행한 구양순체의 여러 특성이 뚜렷하였다. 비편의 모서리를 제외하면 판독하기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여 풍화되지 않았음이 확실하였다. 비편은 우측에 가까운 중간하단에 속하고 탑비의 첫머리에 가까웠다. 좌우에 줄이 없으나 글자의 크기가 좌우로 맞추어 크기가 고르고 임금이냐 부처에 대해서는 한 글자의 空隔을 마련하였다. 판독한 결과를 형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⑤

⑩

⑮

⑳

㉕

眞大師朗月寶光之塔碑銘并序

翰林學士中

禪公繼揚宗旨其道貴貴足以化

⑤ 俗姓金氏法号讓景祖諱藹於斯羅國仕爲

戚之功臣致于知命之季未有承家之胤及

符六季己亥春正月莫抽三葉生於慶州崇孝里

右閭里咸稱其孝致當束髮之期便有捨家之念

其私室公慮不觸色聲香味與同侶喟然歎曰 迦文

⑩ 觸籠空辱 朝恩勿諸宿志同侶嘲之日人之所欲君

步出都門披野人服去投吉州太子山寺行寂 國師法門

而邊 國師云林栖谷隱漢朝卽有四皓一老之徒避世辭榮

聞非不知餌朮披荷遁跡烟霞之外今欲願離一濁待悟一二眞昔

眼古之何者今也何人不待三思請垂一諾 國師曰老比丘童叟

⑮ 語今見其人若許昇堂必須都奧入門之義吾何慊焉令其拈云

能盡東遊要求西宦艤其慈艇涉彼鯨波問玄岸於曹溪虎溪尋

曰是心學之徒面礼爲務天成三年秋八月却返桑津初來

問罪百齊屯營巨野 大師乃如其 悉達

清凉寺 宣許住持至其 太祖昇遐

비편의 위치는 전체의 오른 쪽에서 약간 중간을 향한 부분임을 알 수 있고 신라말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내용이고 비문의 서체와 서술의 일반 형식과 상통하였다. 제1행은 부도탑비의 이름이고 제2행은 찬자와 서자는 한 줄로 처리되었으므로 같은 인물이고 전액까지 혼자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찬자와 서자 그리고 전액을 각각 담당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비문일수록 점차 이를 혼자 담당하고 중기에는 전액대신 해서로 이수보다 비신의 상면의 우에서 좌로 2행으로 써서 나타냈다. 이 비를 세운 현종시대는 점차 중기로 변화하는 과도기를 보였다. 이수에

제액이 쓰였던 정사각형의 홈에 글자가 4글자 정도 훼손되었고 篆書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간단히 소개된 僧朗空塔碑銘과 함께 중요한 고려초기의 금석문으로 左諫議大夫였던 金審言이 지었다는 僧通眞塔碑銘과<sup>16)</sup> 연결하여 비편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번 비편의 발견으로 通眞大師가 讓景의 호이고 탑호는 朗月寶光이었다. 생일과 출생지가 실리고 통진대사가 출가할 당시 낭공대사가 태자사주지였음이 확인되었다. 낭공대사가 입적하였을 916년 양경은 후당에 유학하였고 928년에 귀국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비문은 생애의 순서대로 실렸으므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음에도 내용이 시대 순서로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하다. 스승인 행적의 비를 세울 때에 양경이 만년인 75세였고 954년이였다. 낭공대사비의 후면에 양경의 행적이 간략하게 실렸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비편의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는 부분이 많다.

다만 비문은 전체의 2할 가량만 비편으로 남아서 아쉬움이 크다. 통진대사 양경의 비문을 지은 인물은 金審言이고, 그가 翰林學士로 관품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밝힌 左諫議大夫와 일치하고 1008년에 비문을 짓고 쓰기까지 담당하였음이 찬자와 서자가 한 줄로 표시된 경우 ‘撰并書篆額’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한림학사는 문한직의 으뜸으로 같은 품계에서 가장 승진이 빠른 品頭라 하므로 비문에서 官階보다도 앞에 撰者의 직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심언은 이 비문을 지은 다음에도 10년을 더 살았다.<sup>17)</sup> 그는 1017년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한 다음 100년 지나 그가 별세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1000년

1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奉化縣 佛宇 太子寺 “在太子山 有新羅兵部侍郎 崔仁浼所撰僧朗空塔銘 高麗左諫議大夫金審言所撰僧通眞塔銘”

17) 『고려사』 권4, 세가 1018년 9월 丁亥(음 9월 28일, 양 11월 8일) 김심언의 본관은 靈光이고 그는 성종 때에 급제하고 1018년 9월 28일 시거하였다. 고려 건국 1000년은 삼일운동 전 해이고 고려건국에 대한 기념이 없었다. 2018년은 고려건국 1100년이고 김심언이 사후 1000년이다. 김심언의 출생연대는 모르지만 2017년 9월 18일은 통진대사 양경의 비를 세운 다음 1010년이고 김심언이 사거한 1000년이므로 이 비편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운 묘한 기분을 느꼈다.

지나 필자가 이 비편을 확인하였으므로 우연의 일치이므로 놀라웠다.

낭공대사비의 후면에는 비를 세울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제자 양경과 그의 쌍둥이 동생 윤정을 비롯한 9인이 주지한 사원과 이름이 간단하게 실려 있다. 이들이 주지한 사원은 개경과 그 주변과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이들과 이들의 계승자는 광종시대는 물론 이후 최승로가 비판한 대상인 사굴산문의 如哲은 다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다. 낭공대사보다 14년 늦게 입적하였으나 태조가 통합한 다음 4년 지나 비문이 섰던 朗圓大師 開淸의 제자로 파악되기도 하였다.<sup>18)</sup> 낭원대사의 문도는 태조의 통합에 기여한 후원자였으므로 그보다 먼저 입적하고 비문과 집자가 완성되었던 낭공대사보다 먼저 비문이 섰다. 그러나 낭공대사의 9인 제자는 광종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중요한 사원의 주지를 역임하였으므로 여철과 연결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굴산문은 보조지눌이 수선결사를 통하여 크게 융성하였고 조계종의 중흥에 기여하였다. 이보다 앞서 如哲과 慧照國師 曇眞과 大鑑國師 坦然은 사굴산문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낭공대사와 낭원대사, 통진대사. 그리고 여철과 더불어 사굴산문의 계승관계와 대비하여 몇 갈래로 구체화하여 정리할 소재를 제공하므로 중요성이 있다.

이 비편이 용수사에서 보존하기 시작한 시기와 앞으로 연구에도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다. 현존하는 경북도지정문화재 88호 태자사 귀부와 이수와의 관계, 그리고 보물인 낭공대사 행적의 부도의 위치, 행적과 양경의 어느 한쪽이라는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고 두 고승의 부도와 탐비의 위치와 양경의 나머지 비편을 찾아서 복원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지를 철저히 보존하고 지표조사와 태자사지의 중심 건물인 법당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자체와 박물관이나 연구자의 협력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양경은 스승으로 신라 兩朝(두 왕)의 국사인 낭공대사와는 달리 국사에 책봉되지 않았고 귀부와 비신도 撰者和 書者도 통합된 조출한 탐비를 세

18)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국학자료원, 2011, pp.69-88.

웠다고 해석된다. 양경은 신라의 국사를 광종시대에 옛 신라지역의 민심을 무마시키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에 세우고 자신이 입적한 다음 그의 제자가 대사의 현창을 의뢰하여 낭공대사보다 규모가 작은 탑비를 세웠다고 짐작된다. 스승보다 초라하고 그래서 귀부와 이수가 남았다고 하겠다. 겸손한 미덕은 과장된 모습보다 자신을 오래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3행은 비문 본문의 1행인데 선종의 종지를 지키고 스승의 취지를 잘 계승하였다는 정도로 짐작된다. 제4행은 주인공인 법명이 양경이고 조와 부모의 이력을 적었으나 잘려 나갔고 그리고 출생지와 출생일을 완전하게 실었다. 양경의 속성은 김씨이고 조부 애(諱)와 부친은 신라의 고관이었으나 40세에 이르도록 계승한 자식이 없었다. 대사는 늦둥이로 헌강왕 5년(879년: 당 희종 6년 건부 6년)1월 3일 경주 崇孝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친구나 세속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았으며 출가의 뜻을 가지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태자산사 행적에게 출가하였다. 그는 환속하여 벼슬하라는 요구를 물리치기 위하여 유학을 떠났다. 六祖의 曹溪山과 惠遠의 虎溪도 찾았으며 928년(후당 명종 천성 3년) 8월에 귀국하였다. 그는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증대한 대결이 있었던 안동의 결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태조 말년인 943년에는 왕명으로 청량사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청량사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으나 태자사에서 가까운 영호면의 청량사이고, 당시 水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절 이름이 산 이름으로 변한 곳도 있고 이와 반대인 사례도 있다. 비문은 일부이고 해석에서 단절이 심하지만 양경의 생애 중반에 해당하는 태조의 말년까지 연보처럼 순서대로 실렸다. 세속의 인연과 출가, 그리고 스승인 행적과의 관계, 유학과 귀국, 그리고 태조의 말년에 왕명으로 청량사의 주지를 맡았던 경력까지 정리된다. 그러나 비편으로 깨어진 부분에 촘촘히 있었을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이후의 부분과 계승자는 전혀 알 수 없다. 나머지 비편을 찾아서 현존하는 비편과 합치고 태자사귀부와 이수로 알려진 그의 탑비를 정밀하게 복원하고 말년의 행적과 부도와 탑비의 후반부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하겠다.

## V. 용수사개창기의 연구에 필요한 요소

용수사는 도산면의 서북에 용두산이 암탐처럼 품고 있는 용수사가 산 중턱에 위치하였다. 행정구역상 도산면 운곡리에 속하고 남으로 온혜리와 동남으로 陶山이 위치하여 이황이 만년에 생활과 교육의 자리로 삼았던 養眞庵과 陶山書堂이 있었다. 용수사개창기는 일본의 천리대학에 소장된 법첩형태의 탁본과 최근에 발견된 용산지가 소개됨으로서 거의 전부가 실렸음이 확인되었다.

이 비문이 언제 탁본으로 제작되고 다시 법첩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소장하다가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소장본으로 바뀐 과정은 알 수 없다. 대체로 법첩형태로 탁본을 모은 시기는 내용과 글자의 배치를 살리기 위하여 全紙를 써서 탁본한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보다 오랜 기원이 있다. 본서는 늦어도 18세기나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大東金石帖』을 만들던 숙종 시대에서 멀지 않으리라 추정된다. 이 비는 용산지의 판독과 법첩의 훼손된 부분이 거의 일치하므로 용산지는 비면의 파손 연대를 입증할 시기에 대한 단서를 추가하였다.

법첩은 각행 11자의 길이를 순서대로 오려서 1면 8행으로 모두 2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각 행 6자 각면 4행 69면으로 구성된 법첩도 있다.<sup>19)</sup> 글자의 수효는 같으나 글자의 공간을 나타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할 부분이 있다. 글자 수효는 1,500字 이상임을 알 수 있지만 국왕이나 국가를 존경하는 뜻에서 공간을 남긴 곳이 있고, 그 외에 첫 부분과 끝 부분에 공간이 많으므로 크지는 않다. 글자의 본문은 歐陽詢體를 바탕으로 유행했던 고려 전기의 서체에서 고려인의 창의성을 첨가시킨 중기의 변화를 잘 반영하며, 단아한 楷書로서 글자의 크기는 2cm이다. 찬자와 서자는 모두 崔誦이다. 최선은 이 비뿐 아니라 이 보다 8년 정도 앞서 세운 신라 의상을 교려에서 추봉한 원고

19) 8행 11자본은 황수영박사의 제공에 의하여 필자가 처음 판독하여 소개하였고 4행 6자본은 徐守鏞에 의하여 같은 천리대학에서 구하여 저술에서 사용하였다.

국사비의 글씨도 썼다.

용산지에 판독된 글자는 법첩과 거의 일치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제액은 실려 있지 않다. 오직 『금석청완』과 『大東金石帖』에 ‘龍壽寺開冊記’라는 6자가 大字로 실려 있으며, 글자 크기는 4.5cm이다. 제액은 본문의 서체와 거의 같으나 부드러운 흘림체의 멋을 풍기고 있다. 『금석청완』에는 2자씩 3행으로 제액이 쓰였고 대동금석첩에는 3자씩 2행으로 실렸으나 전자가 맞는다고 짐작된다. 『금석청완』에는 여섯 글자의 테두리에 두 개의 선으로 연결된 모습을 보이므로 복원에서 참고할 사항이다. 이 시기의 다른 비문에서도 제액은 본문을 쓴 인물이 쓰는 사례가 많으며,<sup>20)</sup> 앞선 시기에 제액을 篆書로 따로 書者를 구하여 남긴 사례와는 대조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제액의 형식도 당시의 보편성을 잘 반영한다.

이 비문의 판독은 일본 天理大學 소장본으로 전하는 법첩을 판독하여 전문이 알려졌고<sup>21)</sup> 최근에 알려진 용산지에 수록된 사본을 연구자들에 의하여 판독이 향상되었다.<sup>22)</sup> 다만 훼손되어 판독되지 못한 글자가 있으나 전후의 문맥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이용하여 거의 보충하였다. 이 비의 비편이 발견되어 비의 석질이 확인되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龍壽寺開冊記 (제액)

龍頭山龍壽寺開冊記

天下之名山三韓爲多三韓之勝地東南爲寂東南之巨者太伯稱爲首焉孕靈富媼作鎮綿世何巫廬衡霍之足陳耶自太伯而南起伏三百餘

里突然而秀出者是爲龍頭山實永嘉郡所負而都者也夫有非常之境必有非常之事山之南有洞洞之口有藪焉土人稱爲大王藪蓋我

20) 이보다 앞선 시기의 淸平山文殊院記와 般若寺元景王師碑, 雲門寺圓應國師碑도 같은 형식의 사례에 속한다.

21) 許興植, 「龍壽寺開冊記로 본 高麗中期 華嚴宗의 斷面」 『釋林』 17, 東國大學校 佛教學生會, 1984. 徐守鏞, 『龍頭山 龍壽寺』, 동방미디어, 1997.

22) 한기문, 「고려시대 화엄종과 용수사」 『경북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神聖太大王之際略地至於南方頓兵於此三日而後乃行從此以南諸不服者靡然納款至今其地多喬木衆卉樵鉢者不敢近謂有神物護

之者邑之古老口傳云若於此地作大伽藍闔境帖然無劫奪饑饉之患也先是洞中有古寺累遭山燒灰滅無餘獨遺基隱然在於草莽中蓋不

⑤知年紀矣越 毅廟元年丙寅秋覺華寺住持比丘誠源聞其境勝而悅之遂占地於舊基南數百步始立屋數間未幾源師沒而門人處彝繼

之凡實力於其中累變星霜其前後所立唯十餘間而已彝知力屈財殫乃諗於高僧胤公以卒先師之業爲請公乃目擊而心許之時公五承其

授住覺華寺至甲申歲承 命赴闕 上從容問公曰 先祖睿王嘗爲膺公勅立覺華俾弘揚華嚴教理至于今人受其賜朕亦爲公立令

一華嚴精舍無俾覺華專美於前其如公意何公乃以龍頭山之事應命 上心頗喜卽命日者榮緯往省其地緯 命曰弘大法利 國家

非此地莫可於是 賜號龍壽寺申命守土之臣管其務遂庀徒鳩材經始於乙酉歲增構佛宇僧寮齋講偃息之所至庖廚庫廩無慮九十

⑩餘間繚以周牆一百許步人無勞勩不務過煩適于制度不古不今是役也門人雲美實摠其事焉又刻木塗金造毘盧遮那佛像)觀世音菩薩像

各一覆以龕室列以幡幢莊嚴之飾吁其可駭什器儲峙罔不備具又立長生庫蓄穀一千碩歲權其贏以爲油香(忌日寶)斯皆出於公之私財條

及諸門弟子施長物而爲之者及歲在癸巳公忽感疾而化先期數日 以狀舉雲美於朝以自代復薦高 第處彝廓心以主是寺心亦開土

也自幼受業於公小問多悟穎脫而出及其居是專以弘揚聖教爲事又奉先師之遺囑立經律論藏及十三層青石塔一座於是乎洪願盡矣能

事畢矣乃以戊戌歲十一月--宣送茶香及慶讚詞疏集清衆七百人設大華嚴會以落成焉是

⑪今上龍飛之九載大金大定十八年也尋有 旨仍屬古寺田柴一十結又 慮其口衆食寡其於經久之道不能無慮加賜新寧郡嚮福寺

田四十結臧獲三十口及旁近地閑田四十結下左右街司及諸主者施行勿替先是嚮福卽 毅宗藏胎之所也中遭山火靡有孑遺因以田

與民移籍是寺以爲追福--毅宗仙駕謝幽塗登樂岸之捷徑也又每於忌日齋僧作法以薦流年恒式因以知---聖上弘大佛事之爲

至亦以識----友于之義不問於幽明也至是住持廓心等實懼歲月徂謝文字漫滅----聖君之詔旨先師之行蹟將因循莽鹵無聞於後

具狀其事以聞----上命臣詵以記之臣聞自漢明以來像教熾于天下大都小邑名山勝境鮮不無梵刹而聚緇流蓋將使大法光揚以爲

⑩漢明以來不朽之道也故當其始作之際無不欲規萬世圖千劫然或繼之者非其人又無世主之外護則徒厚殖資產以利加鬪而使圖像毀滅屋宇

記者比比有之今是寺者胤公以大德宿望得福地而營之上承 人主護念之勤下得門弟精進之人其爲貽久歷歲也雖劫石成灰泰山若礪

烏有窮已豈非源深者流必長根茂者葉必盛乎公俗姓元氏名釋胤北原人也考冲翼爲州戶長母方娠夢抱摩尼珠覺而心異之生有異相自

髫髻時善事其親年甫十三洒然有出世之志以告二親二親以前夢貴徵竊惜之未卽領無何竊出投雉岳山三泉寺慧諤法師求剃髮師以非

其親所託難之父母以百計引還卒不可忽一夕母夢公爲僧合掌向佛而作梵唄於是父母議許出家雖在妙年志尙素朴戒行殊特跡亦羅什

⑪之門瑚璉簞簋玄奘之門沉檀蘭蕙者已年至十八依無導智國師受學盡傳其業歷住雉岳山開善寺三角山清涼寺最後住覺華寺皆

上所命也公常以傳道授業爲樂學者輻湊所居成市閒因檀越所請蒞法會者三十餘所凡所度學者後皆爲聞人公所住處無不革舊創新俾

佛事增煥又於諸山構修眞之地凡有四所嗚乎公非徒於道詣極之如彼抑其所樹立卓卓如此是皆宜書以示後者歟觀夫古之記事者傳信

傳著焉耳臣父先臣嘗與公申昵參問道要非一日矣時臣以稚齒備洒掃於左右竊聽緒餘及見行已之大方甚熟今掇門人之所錄以爲信且

著故直書其事之始末如此大定廿一年龍集辛丑季夏哉生魄文林郎試禮賓少卿知制誥賜紫金魚袋臣崔 誥 奉

⑫宣記并書 門人住持道人臣 廓心立石 門人開善寺住持道人臣 立心刻字

이 비의 비편이나 귀부나 비각에 대한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2세기에는 이수보다 비각이 쓰였고 비신의 상단에 전서로 제액을 쓰다가 해서로 쓰는 변화가 나타났고 용수사개창기는 이를 반영한다. 또한 같은 화엄종 고승이고 이보다 4년 후에 세운 서봉사 玄悟國師 宗璘 비의 형태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다. 비신의 비각을 사용하였고 해서로 제액을 썼으며 귀부가 아닌 직육면체의 대좌에 상단 중간에 홈을 파고 비신을 세웠고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용수사개창기의 복원에서 탁본을 제외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현오국사비는 같은 종파의 가장 가까운 시기의 석비로서 참고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 VI. 맺음말

안동시 도산면에는 고려전기에 세운 세 가지 금석문이 있었고 관광자료를 수록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간단하게 목록과 내용의 일부가 여러 부분에 실려 있다. 태자사에 있던 두 가지 비는 신라 말과 고려 초기 사굴산문 고승 낭공대사와 통진대사에 대한 탑비이고 이들은 사제 관계였다. 낭공대사는 신라말기의 고승으로 강릉에 비가 있는 신라의 국사 낭원대사보다 앞서 신라 두 왕의 국사였고 먼저 비문이 작성되었으니 낭공대사 보다 늦게 살았던 낭원대사가 먼저 비문이 섰다. 낭원대사는 왕건의 통합과정에 기여가 컸으므로 입적한 다음 10년 후에 고려에서 탑비를 세웠다. 낭공대사의 비는 그의 제자 통진대사의 노력으로 광종 5년에 비를 세웠고 광종이 고구려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개혁정치를 강조한 정치방향이 반영되었다.

916년에 입적한 낭공대사 행적의 비문은 다음 해에 崔仁澆이 지었고 신라에서 탑비를 세우지 못하였다. 釋端目이 김생의 글씨를 집자하여 쓰기를 대신하였다. 석단목의 이름이 실린 자료란 오직 이 금석문뿐이고, 23) 탑비의 이름은 백월서운지탑이고 글씨로 널리 알려졌다. 이 탑비는 2015년 국보로 예고되었으나 본래의 위치와 귀부와 이수에 대한 조사조차 뒷받침하지 못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서예실의 중심에 배치하여 국보에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으면서도 보물로 격하되어 지정되었다. 국보로 예고되고 보물로 하향 결정된 사례는 드물고 경북과 안동시는 부도와 탑비의 본래 위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좌와 이수를 찾아 국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크다.

23) 집자비는 풍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직접 쓴 글씨와 같다. 집자비임에도 불구하고 낭공대사비의 글씨는 집자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직접 쓴 글씨처럼 보이므로 직접 썼다고 주장하는 김생의 다른 필체보다도 오히려 개성이 넘친다고 평가되었다. 김생이 태자사에 가까운 청량산에서 글씨를 연습하였으므로 이곳에 그의 사경을 비롯한 목서가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집자가 가능하였고 단목 자신이 생존연대는 김생보다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김생의 글씨를 구사할 만큼 계승자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낭공대사 비문 후면에는 그의 수제자였던 통진대사 양경의 가계와 만년 생애가 적지 않게 실렸다. 통진대사 양경의 비편에 나오는 조부의 이름이 낭공대사 비음기와 일치하고 양경의 부와 출가한 동생의 이름도 실렸다. 소략한 비편에도 불구하고 백월비의 후면을 종합하면 양경의 생애가 보충된다. 양경은 낭공대사를 귀와 눈처럼 도왔고 통진대사의 쌍둥이 동생인 允正도 출가하여 낭공대사의 행장을 지었고, 최인연이 이를 토대로 비문을 지었음을 밝혔다. 백월비의 후면은 부도를 세우는 과정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통진대사 양경의 탐에 해당하는 탐비인 낭월보광탐의 남은 비편을 찾아내는 과제가 있고 부도와 귀부와 이수를 찾아서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려 전기의 전형이 갖추어지기까지 부도와 탐비 형태의 변화를 밝히면서 지표조사와 발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비문이 서있던 절터는 물론 귀부와 이수마저 후대에 조성된 시설에 묻히므로 이를 정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서예의 대가인 김생의 집자비인 낭공대사 무덤에 해당하는 부도와 통진대사의 부도도 찾아서 보호하여야 제대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당한 대우이다. 통진대사 비편은 고려의 화엄종 사원었던 용수사에서 가까스로 수습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시작한 시기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용수사는 같은 화엄종 사원이었던 각화사의 주지 誠源이 예종시대에 일으킨 암자로 출발하여 무신집권 초기인 명종시대 각화사 주지 釋胤이 사원으로 개창하여 사액을 받은 왕실의 원찰이었다. 고려말기에는 종파별 경쟁은 계속되었으나 이론상으로는 특색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선교의 두 종파로 통합되었으나 실제로는 고려의 조계종과 화엄종을 계승한 선사상과 화엄사상이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선종만이 존재하여 종파별 특색을 잃으면서 선종사원으로 변한 고려 화엄종의 기반을 가진 용수사에서 먼저 퇴락한 태자사 통진대사 비편을 수습하여 보존하였다는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다만 각화사에 통진대사의 귀부가 전한다는 해석은 재고할 과제이고 태자사지에 보존된 경북도문화재자료 68호는 규모로 보아 낭공대사 탐비의 귀부와 이수가

아니라 통진대사 낭월보광탑비의 유적으로 추정되므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용수사개창기는 용수사에 세웠던 비문이고 최유청의 아들 崔誥이 짓고 글씨를 쓴 사원의 개창에 관한 비문이다. 지금은 현지에서 본래 위치와 비편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나 탁본의 일부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이 비능의 전문은 서예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첩으로 일본의 天理大에 거의 전부가 전하고 이를 토대로 내용이 이미 조사되었다. 용수사개창비는 조은 이수택의 옥필원고로 최근에 발견된 용산지에도 수록된 중요한 금석문이다. 일본에서 보존된 법첩과 종합하여 거듭 연구되었다. 용수사개창기는 도산면에 있는 고려의 대표적 세 가지 비문 가운데 가장 늦게 1181년에 세워졌다. 이 탑비는 경인년(1170년) 무신난이 있고 11년 후에 세웠던 화엄종사찰의 賜額過程과 이를 중창한 釋胤의 생애를 정리하여 후반부에 수록되었다. 이 비는 당시 대각국사 의천의 계승자들에 의하여 봉화의 각화사를 거쳐 용수사로 확대되었다.

조선의 서예는 고려 서예의 전형에서 발전한 경우가 많으므로 엄밀하게 조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도산면에 있었던 세 가지 고려 금석문은 신라말기와 고려 초기, 그리고 고려중기의 불교와 서예의 단면을 각각 전하는 대표적 금석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앞의 두 가지는 선종 사굴산문에 속하는 고승의 탑비이고 용수사 개창비는 화엄종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본래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기단부와 이수나 비갓이 확인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낭공대사의 비신만 가장 완벽하게 현존하고 통진대사비는 비편만이 용수사에 현존하지만 태자사지에 현존하며 경북도문화재자료 68호가 규모로 보아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세 가지 금석문에는 비신에 부가된 나머지 부분과 정확한 위치에 대한 학계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위치를 잃고 옮겨간 비신이나 비편만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말고 본래 섰던 자리와 부도와 석등을 함께 찾아서 일괄 지정해야 제대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당한 노력이라 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토대를

문화재나 지방문화재자료로 지정해야하므로 명성에 걸맞은 본래 위치와 없어진 일부를 찾아서 보충하는 작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20년 8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9월 2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李荇 등,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 李世澤, 『龍山誌』 1777년 완성, 옥필필사본, 龍壽寺所藏.
- 中樞院調查課編, 『校訂世宗實錄地理志』,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 葛城末治, 「校訂世宗實錄地理志解說」
- 中樞院調查課編, 『校訂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 徐守鏞, 『龍頭山 龍壽寺』 동방미디어, 1997.
-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1.
- 金杜珍, 「新羅下代 嶺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 『省谷論叢』 17, 省谷文化財團 1986,
- 서인원, 「조선 전기 지리지의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혜안, 2002.
- 이성원,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푸른역사, 2006.
- 한기문, 「고려시대 화엄종과 용수사」 『경북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 許興植, 「龍壽寺開闢記로 본 高麗中期 華嚴宗의 斷面」 『釋林』 17, 東國大學校 佛教學生會, 1984
- 허흥식, 「용산지의 서지와 보충할 과제」 『경북불교의 재발견』, 한국국학진흥원, 2017.
- 황인규, 『고려시대 불교계와 불교문화』, 국학자료원, 2011.

Abstract

## A Study on the Three Steles of Goryeo in Andong City, Korea

Heo, Heung-sik\*

Today Dosan-myeon, Andong-si is located in the core area of Yeon-Hyeon during most of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three important stone steles built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and now all of them had left the area and some of the actual objects or rubbings are handed down to other regions. This needs to be investigated locally and urged to be properly evaluated.

The origin of Dosan-myeon is difficult to explain apart from Yi Hwang. Yi Hwang was born under Mt. Yongdusan and kept his birthplace until the mid-term when h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latter half of his life, he valued his hometown, built Yangjinam Rock on the foundation below Dosan Mountain, and worked hard to cultivate himself, and opened Dosan Seodang to devote himself to local education. Yi Hwang's pen name Toegye and Dosan, was expanded to neighboring Buncheon and Cheongnyangsan, which had an absolute influence on the origin of Dosan-myeon.

Dosan-myeon is located to the north of the upper reaches of the Nakdong River, and there were many remains due to the shortcut to

---

\* honorary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capital of Goryeo and Joseon, Gaegyeong, and Hansung, in Seoul Gyeongju, Silla. The steles of Nanggong Buddhist Monk in the late Silla Period, Yanggyeong in the early Goryeo Dynasty, and stele of Yongsusa in the mid-Goryeo Dynasty are reported here as but the remains of the site are almost researched. The stele of monk Nanggong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treasure by the calligraphic works and contents, but it was downgraded to a treasure due to lack of local research. The stele of monk Tongjin was found to be located in a different area, with academic views on the stele was found elsewhere.

Some parts of the rubbing and the regions of the monument were reported, but the location of the monument and its parts were not even identified. I hope that these three steles will be found accurately through an investigation historical sites, and that each of them will find a place suitable for its original value. I also finished the surface survey of these three important steles and suggested the remaining tasks for research.

**keywords :**

The steles on monk Nanggong. The piece on stele of monk Tongjin, The rubbing on stele of Yongsusa, Record of Yongsan, dragon head and tortoise stand of the site of Taejasa. The tortoise stand of monk Tongjin, The cultural Heritage Material of Gyeongsangbuk-do No. 68.

